

농인들이 원하는 대안 사회

허일 (한국재활복지대학)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한다. 친구와 약속을 정할 때, 공부를 할 때, 학원을 등록할 때,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나 책을 읽을 때 모든 사람이 동일한 선택을 하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 경험과 세계관에 따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 꿈꾸는 미래의 모습, 지금의 삶의 조건에 따라 다양한 선택을 한다.

농인들도 공부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여가 생활을 즐기면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죽음에 직면하여 다양한 선택을 하고 있다. 그런데 농인들의 선택이 같은 땅에서 살고 있고, 같은 핏줄, 역사를 공유하고 있기에 청인들과 유사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음성 언어와 정보의 청각화에 익숙한 청인들에게는 너무나 낮은 선택들을 농인들은 하곤 한다.

농문화의 독특함에 대한 청인들의 두려움

청인들, 특히 청각장애 관련 전문가들(의사,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등)을 당혹스럽게 하는 선택들 중 하나가 미국의 농인들을 대상으로 태어나는 자녀의 청력 상태가 어떠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미국 농인 부모 10 쌍 중 9쌍이 자신의 자녀가 농인이었으면 좋겠다고 대답한 조사 결과이다. 요 근래 한국에서도 농인 배우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심지어 청인 배우자와 이혼하고 농인 배우자와 결혼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경향 또한 청각장애 전문가들이 당혹스러워 하는 농인들의 선택이다.

이러한 당혹감은 어디에서 연유한 것일까? 그의 어머니도 청각장애인이었고, 농인을 위한 재활과 교육에 헌신했던 알렉산더 그레함 벨의 다음과 같은 걱정이 청인 전문가들의 당혹감이 어디에 연유한 것인가를 잘 말해 주고 있다.

만약 우리가 청각장애를 가진 새로운 인종을 만들어 내기를 희망하고, 청각장애인은 청각장애인과 결혼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을 고안하고자 한다면, 지금 현재의 상황(완전히 다른 동기에서, 더욱이 아주 고상한 동기에서 비롯된)을 지속시키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은 찾아 볼 수 없을 것이다.

Bell이 지적한 현재의 상황이란 19세기 청각장애인을 기숙제 학교에서 교육함으로써 청각장애인에 대한 격리, 분리, 차별이 더욱 조장되고 있는 상황을 말하고, 수화의 사용을 묵인한 채, 어린 청각장애 학생들을 기숙제 학교에서 양육하고, 청각장애인들에게 헌신적인 모임에서 청각장애인들끼리의 사회적 교제를 인정하고 오히려 조장하며, 청각장애인들끼리의 결혼(벨은 intermarriage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결혼이라는 뜻 외에도 근친 결혼, 혈족결혼, 근친상간이라는 뜻이 있다)을 조장하고 있는 상황을 말한다. Bell은 이를 막기 위해서는 청각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주류 쪽인 건청인들을 의식할 수 있게 가르쳐져야만 하고 다른 청각장애인들과는 가능한 한 최소로 만나야 한다고 믿었다. 이 믿음은 특히 교실에서 지켜지기를 바랐는데, Bell은 건청인 교사만을 교실에서 보기를 원했다.

청각장애를 가진 새로운 인종의 출현에 대한 Bell의 공포는 그의 생각들 중 작은 부분이 아니었다. 그에겐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다. 이는 그의 청각장애에 관한 개념과 미국사회가

어떻게 청각장애인들을 대해야 하는가에 관한 관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Bell은 가능하기만 했다면 청각장애인들끼리의 결혼을 금지하는 억압적인 수단을 입법화했을 것이다. 예를 들면, 1883년에 Bell은 "선천적으로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은 악을 억제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무지막지하게 구속하는 방법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인정하고 실지로는 그러한 생각을 포기했다(인도주의적인 이유나 도덕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실용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대신 Bell은 청각장애인과 건청인 간의 결혼을 격려하려는 노력을 지지했다. Bell이 청각장애인끼리 모이는 것을 허락하고 격려함으로써 청각장애인끼리의 결혼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현실을 비난한 결과로 나타난 결과들 중 하나는 미국의 많은 주의 인종개량법에서 법률화된 내용으로 나타났다. 그 내용인즉슨, 선천적으로 청각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그들이 청각장애를 다음 세대에 확실하게 전하지 못하도록 불임(단종)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Harlan Lane은 최근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청각장애라는 새로운 인종의 출현에 관한 Bell의 연구논문이 쓰여졌던 그 당시 Baltimore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선교회의 목사에 의하면 청각장애인들의 부모들 사이에서 그들의 가족 주치의들이 그들에게 몰상식하고 잔인한 수술(청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을 불임시키는 수술)을 권한다는 소식이 마치 들불처럼 퍼져나갔다고 한다.

그러한 불임수술들이 많이 행해졌으며, 많은 청각장애를 가진 성인들의 삶이 결과적으로 가혹하게 상처를 입었다. 청각장애인들만이 그런 취급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많은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사람들(socially inadequate classes)이 그런 식으로 취급되었다.

Bell은 청각장애인들이 자신들의 장애를 부정(denial)을 통해 극복하도록 격려하는데 그의 삶을 바쳤던 모습으로 남아 있다. 그는 수화를 부정했고, 건청인들과 청각장애인들 사이의 중대한 문화적 차이를 부정했으며 청각장애인들끼리의 결혼을 부정했다. 그리고 청각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교육할 때 청각장애를 가진 교사들을 채용하는 것의 가치를 부정했다. 또 기숙제 학교에 학생들을 배치하는 것을 부정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적어도 청각장애인들이 보기에는 그가 청각장애인을 그 자체로서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 마지막 평가는 Bell의 부인인 Mabel이 내린 것이다. 그녀는 "Bell, 당신이 하고 있는 청각장애인 관련 사업은 당신에게 인간에 관한 사업이 아닙니다. 당신은 청각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아주 부드럽고, 친절합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한 당신의 관심은 그들의 청각장애에 있지, 인간인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Bell에게 있어서 청각장애인 교육의 중요한 목표는 듣고 말하는 사람들의 세계에서 살도록 그들을 그 세계에 맞추는 것이었다. 그는 그이외의 어떤 목적도 사실상 생각할 수 없었던 것 같다.

이와 같이 Bell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청각장애인들이 가능한 한 최대로 건청인 세계로 흡수되는 것이었다. Bell은 수화(sign language)가 구어(spoken language) 발달에 방해가 된다고 믿었고 따라서 청각장애인교육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화의 계속적인 사용은 영어라는 언어를 마스터하는데 방해가 되며, 선천적으로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책을 이해하지 못하며 읽을 수 없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Bell에게는 수화 사용을 지지하는 주장들이 모두 오히려 수화의 사용을 반대하는 증거들로 여겨졌다. 왜냐하면 그러한 주장들 속에는 영어가 '외국어'가 되고, 청각장애인들이 수

화를 더 많이 사용할수록, 미국에서 이방인(외국인)이 될 가능성이 더 커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었다.

농인들에 대한 청인들의 무지와 오해

너무나 많은 청인들이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청각장애인' 혹은 '농인'이라는 말을 보거나 들었을 때, 얼어 버리고 만다. 전에 이런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꿈속에서라도 만나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무얼 할지 전혀 모른다.

많은 농인들은 무엇 때문에 청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게 되는지에 대해 정말 궁금해 한다. 이는 청인들은 '농 혹은 청각장애'에 대해서 교육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청각장애(deafness)에 관한 정보를 좀 알게 된 후에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마찬가지다.

많은 농인들이 느끼는 바이지만, 청각장애에 대해 건청인에게 교육하는 것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 같다. 그 이유는 일군의 사람을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물론 농인들은 그들의 청각장애 혹은 소리를 들을 수 없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농인들 중에는 자신이 농인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느 정도냐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병이 걸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한다고 말할 정도다. 즉 병리학적인 입장에서 농인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많은 농인들은 자신이 무능하거나(능력에 한계가 있거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많은 농인들은 처음부터 듣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청력 상실을 그리워하는 일 따위는 없다. 장애라는 느낌이 없다. 본인들이 무능하며, 장애인이라고 말하는 경우는 건청인 세계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청인들과 농인들 간의 인식 차이는 무엇에 연유한 것일까?

농인 작가인 벤 바한은 농인들을 장애인으로 몰고, 못박기 위해 건청인 세계에서 사용하는 강력한 도구는 청각장애 혹은 농(농 수준의 청력 손실)이라는 단어의 사용이라고 주장한다. 사전에는 농(deafness)의 뜻을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웹스터 사전: 농, 1. 청지각의 부족이나 결손, 2. 듣거나 이해하려고 하지 않음

랜덤 하우스 사전: 농, 1. 부분적으로 듣거나 완전히 듣지 못함, 2. 듣기를 거부함

사전에는 분명히 두 가지 정의가 담겨 있다. 하나는 들을 수 없음, 다른 하나는 듣기를 거부함. 두 정의 모두 부정적인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농인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설명할 수 있는 사실 그대로의 정의가 말해 주는 것은 나는 들을 수 없는 사람(농인)이라는 것이다.

농인들은 수년 동안 '농'이라는 단어에 성가시게 덧붙여진 또 다른 뜻(우둔하고 말을 못함)을 없애려고 부단히 노력해 왔다. 농인들은 일반 대중들이 그런 뜻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변화를 보였다는 것을 경험해 왔다.

또한 농인들은 자랑스러운 '농'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사회에서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확보하고자 싸워 왔다. 미국 농인들의 경우,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 정체감은 청인들에게 질병을 생각하며 사용하던 'deaf'를 대신해서 대문자를 사용해서 자랑스러운 자신들의 모습을

‘Deaf’로 나타내게끔 요구하여 왔다.

그러나 이제 일부 농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언가를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첫째, 농(Deaf)이란 어느 정도의 청력 손실이 있고, 수화를 자신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택했고, 시각적인 방법(정보의 시각화)으로 의사소통하기를 선택한 사람들로서, 이 사회의 하위 문화집단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사전에 뜻을 하나 더 추가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둘째, 농인들에게 맞는, 질병에 걸린 사람(병리학적 관점)이나 불쌍하고 저렇게 어떻게 살아 식의 부정적인 뜻이 담기지 않은 새로운 명칭을 찾아 사용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문자를 사용했던 안 했든 ‘deaf’라는 단어는 농인들이 할 수 없는 것(영어에서 disable은 할 수 있다는 뜻의 able의 반대말이다. disable의 명사형인 disability를 사용해서 장애인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에, 들을 수 없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농인들은 과거에 들은 적이 없고, 처음에는 듣다가 못 듣게 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듣는 것을 그리워하거나 갈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농인들을 구분 지을 때, 듣지 못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다(아무도 백인을 ‘피부가 검지 않은 사람’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백인들은 피부가 검었던 적도 없고, 피부가 검기를 갈망하지도 않는다.)

이런 기준으로 농인을 확인하고, 농인을 농인답게 만든다면 옳지 못하며,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로 ‘deaf’라는 단어를 이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도록 농인들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농 문화의 주체: “보는” 사람들

벤 바한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명칭으로서, 그나마 가장 마음에 드는 말로 ‘보는 사람’ 혹은 ‘볼 수 있는 사람’(seeing person)이라는 호칭을 제안하고 있다(‘건청인’ 혹은 ‘청인’이라는 말은 원래 ‘hearing person’에 해당하는 말이다). 이 명칭은 농인들이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에 근거해서 정의하고 있다. 무능력이 아니라 능력에 초점을 맞추도록 관점을 바꾸어 놓고 있다.

농인들을 ‘보는 사람’으로 바라보게 되면, 지금까지 농인들이 귀중하게 여겼던 생활방식, 문제해결 방식, 사고방식 등 주위의 모든 것이 명쾌하게 설명된다. TTY(문자 전화기), 자막 방송 수신기, 방문 알림용 깜박이, 시각 언어의 등장, 수화 등. 수화는 농인들이 무능력하기 때문이 아니라, 유능하기 때문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등장한 언어이다.

만약 일반 대중들이 수화와 농 문화를 귀중하게 여기는 일군의 사람들을 농인(deaf person)이 아니라, 보는 사람들 혹은 볼 수 있는 사람들(seeing person)이라고 그 정체를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벤 바한은 자신이 치과에서 경험한 일을 통해 자신의 원하는 변화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였다.

벤이 치과에 들어가, 접수를 맡아보는 예쁜 아가씨에게 나를 도와줄 수 있는지 물어 보았다고 한다.

“저는 농인입니다(듣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벤은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게 위해 이렇게 말하곤 했다.

“안녕하세요, 나는 수잔이에요. 뭘 도와 드릴까요?”

그녀가 벤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벤은 다시 자신의 귀를 가리키며, 손을 저었다.

“아니오”

수잔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벤은 “우우(위협하는 소리)”라고 말하고 싶은 유혹이 있었지만, 심장마비를 일으킬까 봐 걱정이 되어서 그럴 수 없었다. 벤은 내일 아침 신문 1면에 “농인에게 놀라 공포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다”라는 기사가 실리는 것을 보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벤은 생각했다. 다시 그 치과를 찾아가 수잔에게 “나는 보는 사람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한다면, 그녀는 즉시 종이를 내밀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알고 있다고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까라고.

농인들이 원하는 대안 사회와 대안 문화

농인들은 자신들의 무능력이 아니라 유능함에 근거해서, 청인들과 농인들이 존중 속에 공존하며, 청인들과 동일한 목표를 향해 삶을 스스로 일구어 나가고 있지만, 청인에게 익숙한 A 방법이 아니라 B 방법으로 더 잘 의사소통하고,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고, 결혼생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농인 혹은 보는 사람들임을 세상이 알아주길 원한다. 농인들의 의사소통 장애와 정보 접근 장애가 농인들이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농인들이 더 잘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나와 다른 존재가 된다는 이유로 그 사용을 거부하는, 주변 사람들과 세상에 참여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억압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농인들이 원하는 대안 사회/대안 문화는 낯설음과 두려움, 금기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보다 완전한 사회 참여와 통합, 농인과 청인의 평등한 공존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농인들에게 있어 차별은 ‘남과 다르게’가 아니라 ‘남과 똑같이’ 농인을 대하고, 남과 똑같이 의사소통하고,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고, 결혼 생활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인 경우가 더 많았다. 농인은 지난 몇 백 년 동안 청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의사소통 방법을 배우기 위해 노력해 왔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청인들도 농인들이 이해할 수 있고 선호하는 방식으로 의사소통하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일해야 하지 않을까?

미국 오하이오 주립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농인 피터 폴 교수의 수업에서는 교수는 청인 학생에게 음성 언어로 수업을 하고, 학생들은 교수에게 질문할 때 수화를 사용한다고 한다. 농인들은 정보의 시각화에 근거해서 세상이 돌아가기를 바란다. 그래야 보다 많은 농인들과 청인들과 함께 더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문화에 대한 논의가 대안 문화 차원에서, 그들의 유능함(Deaf Power)에 근거하고, 농인들에게 자신의 삶을 대한 통제 권한을 돌려주는(Deaf Empowerment) 방향으로 방향매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이상 농인의 무능력(disability)이 아니라 그들의 유능함(ability),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의 바램(want)에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또한 농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또한 한 개인의 노력과 능력 향상만으론 해결될 수 없으며, 이 사회, 특히 청인들과 농인들이 생활방식, 문제해결방식, 공존방식에 대한 협상과 농인들의 완전한 사회 참여를 가로 막고 있는 청인 중심의 정보접근 방식, 생활방식, 업무 처리 방식만을 고집하는 경직성과 하나만 아는 무능력,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같아야 한다는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려는 아주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만약 이 사회가 농 문화를 존중하고, 농인들이 원하는 대안 사회와 대안 문화까지도 한국 사회에서 용인 가능한 생활방식, 만남의 방식, 공존의 방식으로 인정한다면, 이 사회는 무언가를 하지 않음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함으로써 차별 철폐하는 방법에 익숙해 질 것이며, 자신의 생각과 느낌, 바람,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정보들을 청각 채널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시각 채널을 통해서도 전달하는 법에도 능통한 사회가 될 것이다. 더욱이 근본적으로 자신에게 익숙한 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회가 아닌 상대방이 보다 잘 의사소통할 수 있고, 더 잘 공부하고, 보다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고 실천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또한 무한 경쟁 사회라는 기치 아래, 타인보다 더 큰 권력을 가졌는가와 더 많은 재산과 입고 있는 옷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사회, 무한 욕심이 찬양 받는 사회가 아니라 타인과 공동체의 요청에 민감한 나눔의 사회, 타인과 나의 관계의 성장 속에서 기쁨을 찾는 비움의 사회, 남을 위한 삶이 높이 평가 받는 섬김의 사회가 구현 가능할 것이다. 이제 우리 청년들이 지금까지 보다 많은 사람들과 행복하게 잘 살고, 같이 잘 살려고 노력해 온 농인들로부터 ‘보다 많은 사람들과 더 잘 공존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할 때다.